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 선포식

제1회 한탄강 가요제 등 자축행사로 치뤄져

한탄강 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한탄강 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탄강 댐 건설반대 포천,연천,철원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해 철원군 고석정 광장에서 3개 시군 주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탄강 댐 백지화 선포식 및 제1회 한탄강 가요제를 자축행사로 가졌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년간 끌어온 한탄강 댐 건설계획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상 백지화 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댐 건설계획을 아직 백지화 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 공식선언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한탄강 댐 건설은 부패한 관료들이 댐 건설의 논리를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면서 "우리 지역일부 관료들도 댐 건설에 따른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수자원 최석범 연구소장은



지난 6일 한탄강 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철원군 고석정 광장에서 댐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제방보다 2.5m 더 비싸고 경제성과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한탄강 댐 건설은 결국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정부는 임진강 유역치수 방어를 위해 값싸고 친환경적인 제방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감사원은 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1999년부터 추진한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기본 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했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제1회 포천시장애인어울마당 成了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된 한마당



포천시장애인연합회가 지난날 30일 포천시내체육관에서 제1회 포천시장애인 어울마당을 개최한 가운데 1부 기념식 후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포천시장애인연합회(회장 박재훈)는 지난날 30일 포천시내체육관에서 제1회 포천시장애인 어울마당을 개최했다.

포천시, 포천교육청, 포천경찰서가 후원하고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포천시자원봉사센터,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 포천시자활후견센터가 협찬한 어울마당에는 관내 장애인 및 봉사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영북농협 각홍품물놀이팀의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고,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 및 이벤트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2부 행사에서는 포천시문화예술봉사단과, 노아의 집 두드림공연단의 공연과 이벤트로 열린 이미지용과 매직풍선 페이스페인팅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재훈 회장은 "포천시에서는 등록장애인인 6,200여명의 회원들이 있으나,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포천시장애인의 화합

과 권리증진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어울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간 경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정명원씨(개인택시,포천시 선단동)가 아들의 간 이식을 받으려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비가 없어 애태우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종구씨(노래연습장협회 회원, 소흘읍)는 본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포천시민의 도움을 요구했다.

평소 간 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정씨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개인택시운행을 계속하다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서울아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의정부공고 1학년 아들 정정준 군의 간 이식을 받으려면 회복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하고자 하나 수술비가 1억원 이상 필요해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031-535-4447(포천모범은행자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리 동네를 말한다 34

창수면 추동1리 이장 조병현

신북온천 ~ 추동저수지 연결도로 신설로 관광객 유치해야

포천시 창수면 추동1리는 포천시내에서 강병원 사거리를 지나 포천의료원 방향으로 물어고개와 하심곡을 지나 아도니스C.C 방향을 지나면 찾을 수 있는 마을로 1일 4회의 버스가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추동1리의 옛지명은 '가래물'로 가래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추동1리란 지명은 가래나무 '추(葦)'를 사용해 지어진 이름이다.

추동1리는 크게 상수동, 중수동, 하수동이라고 나눠 1, 2, 3리를 부르기도 한다.

23년간 이장을 역임한 전임이해천 이장의 뒤를 이어 지난 2003년 2월부터 3년간 추동1리의 이장을 맡아 마을을 돌보고 있는 조병현(66·사진) 이장으로부터 추동1리에 대해 들었다.

추동1리는 50세대 100여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고려말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마을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60세로 노령화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을은 조병현 이장을 비롯해 노인회와 부녀회가 구성돼 있어, 마을의 애경조사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조 이장은 "마을에서 젊은 일꾼을 찾아 볼 수 없게 된 지 오래됐다"며 "마을이 노령화되다 보니 이장인 본인도 노인회 회원 중 일부"라며 노령화를 걱정했다.

마을주민들의 대다수는 논농사와 수도작 등 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마저도 힘에 부친 상황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가구는 전체 50가구 중 17가구 정도에 불과해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고도 하기 힘들다"라며 "그 밖의 인원은 별다른 일이 없는 노인들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에 포치회사가 1곳 위치하고 있는데 일부노인들이 그곳에서 소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동1리 추동저수지는 최근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인기리 방문된 드라마 '파리의 연인'을 촬영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조 이장은 "당시 마을에 드라마 스태프들이나 촬영 후 촬영지가 궁금했던 관광객들로 마을



조병현 이장
창수면 추동1리

이 시끄러웠다"며 "하지만 그런 호황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변한 위락시설이나 음식점이 한곳 없어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창수면에서 관광지로 육성·추진하려는 장소 중 추동저수지가 물 맑고 오르고 있는 면에서는 다른 장소를 1순위로 꼽았다"고 말했다.

조 이장은 "마을에서 젊은 일꾼을 찾아 볼 수 없게 된 지 오래됐다"며 "마을이 노령화되다 보니 이장인 본인도 노인회 회원 중 일부"라며 노령화를 걱정했다.

추동1리의 뒤편에는 종현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북면 삼정리와 매우 가까운 거리다.

마을 주민들은 종현산을 가로질러 삼정리까지 군사도로 등 교통로가 확보되길 바라고 있다.

조 이장은 "현재 추동1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신북온천 관광권인 삼정리와 연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신북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추동저수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로를 확충한다면 마을에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동1리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 종현산에 기원을 하는 '산 치성'(산에 치성을 드리는 기원제)이다.

조 이장은 "매년 2월에 주민들 모두 모여 종현산에 산 치성을 드리고 있다"며 "산 치성은 마을을 안병을 위해 지내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어 주민 화합을 위한 토대로 삼고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이장은 "마을을 돌보고 있는 것 외에도 노인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르고 있다"고 말했다.

추동1리 추동저수지는 최근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인기리 방문된 드라마 '파리의 연인'을 촬영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조 이장은 "당시 마을에 드라마 스태프들이나 촬영 후 촬영지가 궁금했던 관광객들로 마을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역발전의 기틀마련 위해 노력 다짐

嶺三지역발전협의회 7월 月例會

영삼지역발전협의회(회장 원희재)는 지난 1일 소흘읍 이곡리 모 음식점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신임 이영재 소흘읍장과 읍사무소 직원들의 상견례와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영삼지역 7개 리(무림1리, 무림2리, 아곡1리, 아곡2리, 직동1리, 직동2리, 직동3리)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21명과 내빈으로 소흘읍 이영재 읍장, 윤기철 개발계장, 박상곤 산업계장 및 포천시의회 이흥구 의원이 참석했다.

원희재(직동2리 이장)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마을 부녀회장들의 모임이 시발점이 돼, 지난해 10월 출범한 영삼지역발전협의회의 모임이 어느덧 3회를 맞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지역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는 이영재 소흘읍장이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내년 2월 영삼자율방범대의 시보조금 지원에 대한 박춘범 소흘읍 이장협의회회장의 공지사항 발표와 소흘읍장에 전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각종의견이 개진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故 문계 유기수 선생 추모식

타계 3주기 ... 80여명 참석 애도



2002년 6월 3일 타계한 고 문계 유기수 선생에 대한 추모식이 지난 2일 포천시 유림회관에서 가행된 가운데 선생의 유족들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2002년 6월 3일 타계한 고 문계 유기수 선생에 대한 추모식이 지난 2일 포천시 신읍동 소재 유림회관에서 거행됐다.

올해로 3주기가 되며 평소 고인의 고회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추모식은 포천시의정회의 주관으로 유기수 선생 유족과 내빈 80여명이 참석해 이뤄졌다.

추모식은 내빈들의 전물군경과 호국영령, 문계선생에 대한 묵념, 포천문화원 박영근 이사의 문계선생의 약력소개, 박윤국 포천시장과 홍성훈 포천시의회회장의 추모사, 황행일 포천시 미술협회장의 조시 낭송, 유인철 군의 유족대표 인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문계 유기수 선생은 1936년 7월 17일 신북면 계류리 156번지에서 출생한 포천시경우회이사 포천시 지방 행정동우회원 포천

농협 창설 1991년 포천군의회 내무위원장, 결산감사위원장 등 의정활동 1986년 포천문화원 설립, 사무국장 역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포천의 현대사에 있어 큰 업적을 쌓은 인물로 알려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 생 · 산 · 품 · 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